

2024년 03월 20일 12주간

제24-12호
목장성경공부



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(개봉동, 성현교회)

☎ 02 2613-2080 . 2683-2080

FAX 02 2689-1230



대한예수교장로회

성현교회 변화 부흥
회복

제12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

성경말씀 시편 119편 81~96절(구약p.892)

암송구절 시편 119편 91절(구약p.893)

찬 송 찬송가 365(통484)장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

찬송가 455(통507)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

본 문 이 해

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로 그 길이가 176절에 달합니다. 그 중에서 본문인 81~9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먼저 81~88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자신을 안위하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. 이어서 89~9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천지가 그 규례대로 운행됨을 찬송합니다.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되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.

말씀 속으로

1. ‘연기 속의 가족 부대’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?

시편 119편 83절

– 83절 내가 연기 속의 가족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

– 시인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
보충설명

가족은 연기를 먹으면 오그라들면서 금이 가버립니다. 그러면 가족 부대는 무언가를 담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삶을 ‘연기 속의 가족 부대’에 비유함으로 영혼을 담고 있을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면서, 스스로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. 동시에 시인은 가족이 연기에 방치되면 안 되는 물건임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고난이 스스로 원한 상황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.

2. 시인은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까?

시편 119편 81~82, 87~88절

-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
-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
-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
-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

-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.

보충설명

시인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.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. 그렇기에 시인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이냐고 탄원하기도 하지만, 이 모든 것을 의로우심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.

3.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입니까?

시편 119편 82절

-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

-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.

보충설명

시인은 “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”라고 고백합니다. 이것은 주의 법을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안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. 나의 삶의 고난을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고난의 이유도, 그 결국도 알 수 없어 무너지거나, 시인의 표현대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견디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.

묵상 이야기

갓 군대에 입대한 신병이 군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선임에게 물었습니다. “어떻게 하면 군인으로서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?” 선임이 대답했습니다. “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도, 걱정할 것도 없어.” 그 신병이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. “그러면 저보다 상급자인 분어들 많은데 그분들이 서로 다른 지시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” 그러자 선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. “그때는 최고 계급자에게 순종하면 돼.” 온 우주의 최고 계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,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.

나눔

– 고난 중에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.

기도

–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.

적용

–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도록 결단합니다.